3 -MAY 26
Copy ____ 1959

2월호

1959년(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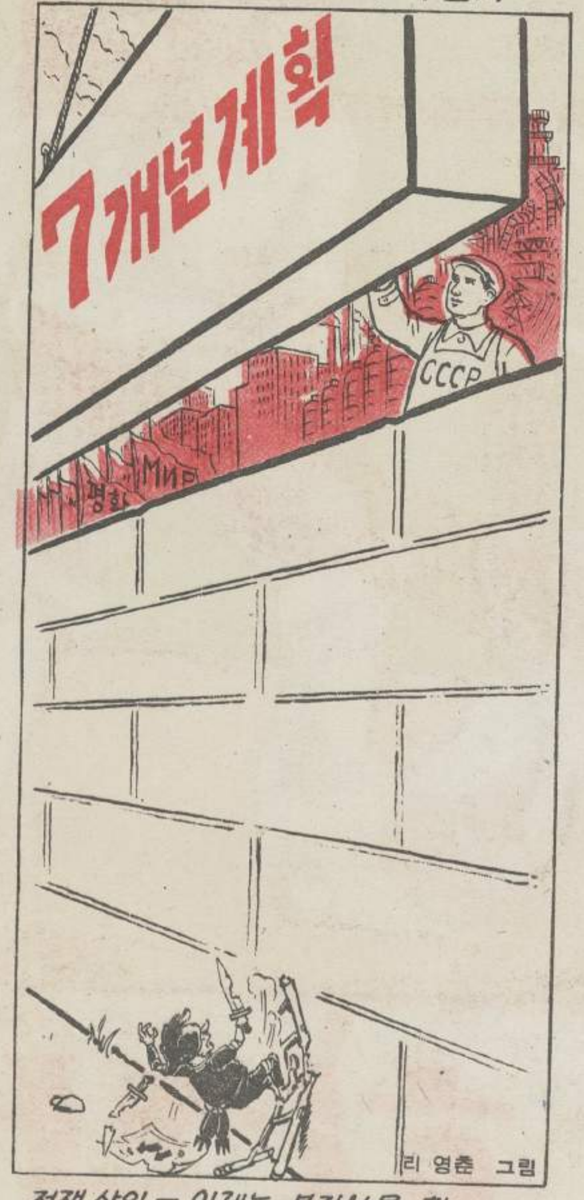
화살

따라 잡고 앞선다

홍 종호 그림

미제 —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

위력 있는 평화의 수호자



리 영춘 그림

전쟁 상인 — 인제는 불장난을 할
수 없게 되는 구나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수호자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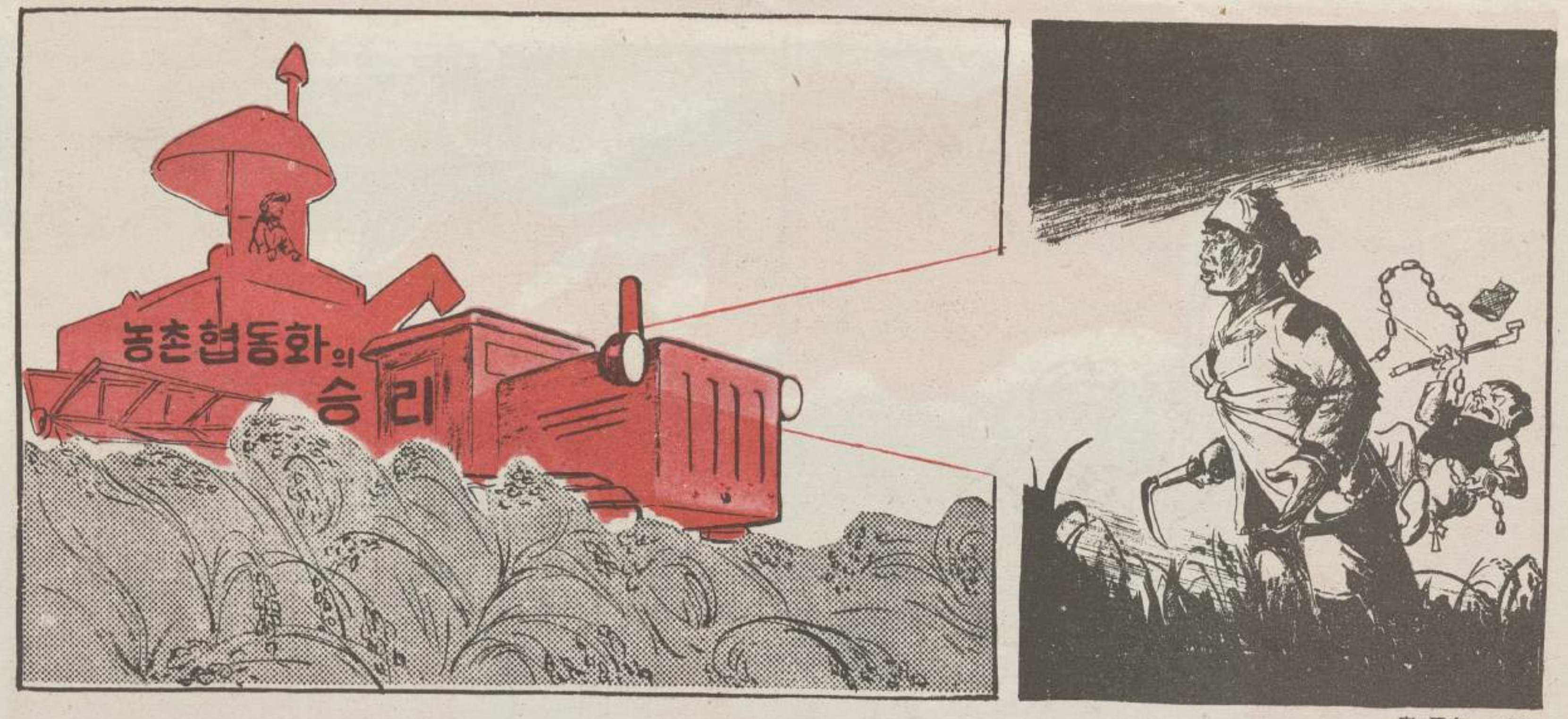
빛나는 전통 믿음직한 보위

리 영춘 그림

높은 로력적 성과로 참가한다

백 인균 그림

앞길을 밝혔다



홍 종호 그림

꿰지 않은 구슬

구슬이 서 말이래도 꿰여야 보배라는 말

이 있다. 이처럼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집이라도 그것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자기의 가치를 잃어 버린다.

종성 목장 건설 지도 위원회 일'군들은 바로 그런 집을 지어 놓았다. 그들은 목장 종업원들의 문화 주택을 건설할 위치를 토의했다. 그때는 여름이였다. 그들은 산 꼭대기가 제일 신선하고 서늘하고 경치가 좋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산꼭대기에 문화 주택들이 세워졌는데 밑에서 올려다 보면 더한층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산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같이도 보였다.

겨울이 되였다. 위도 상으로도 북쪽이여서 겨울이면 낮은 지대에서도 추위가 이만저만이 아닌 종성에서 산 하나 더 높은 이 산꼭대기는 눈보라와 세찬 바람이 아우성을 치며 집들을 후려 갈겨 평지보다 갑절이나 더 추웠다. 그래서 석탄과 나무를 굴뚝에서 불이 나도록 때도 집안은 냉장고와 같았다. 더욱이 이런 추위에 눈 속을 헤치며 우물이 있는 산 밑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려오기란 보통 일이 아니였다. 그래 이 산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왜 우물도 가깝고 아늑하고 경치가 좋은 산 밑에 집을 짓지 못하느냐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건설 지도 위원회에서는

《참으시오, 이제 여름이 되면 또 그 곳이 제일이라고 할거요. 지금 당장 추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름에 서늘할 것도 생각하시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아무리 여름철에 서늘할 것을 생각해도 추운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종성 목장 신 성호

나를 찾아 오려거든……

조 명식 그림

몰라 보게 변했다

리 영춘 그림

—운전수 동무, 길을 잘못 들었나 보우, 분명히 나루터일텐데…
—하하 조합에서 벌써 다리를 놓았다오

—분명 이 밤나무 아래였을텐데?
—아저씨 저 문화 주택으로 이사 했습니다

—할아버지, 작년에 부탁한 방등을
사왔더니 소용 없게 되였습니다

큰 고기 버리고 작은 고기 찾는다

송 용남 그림

옥수수대—관리 위원장 동무는 우리를
고기와 바꿀 생각은 안하거든

나는 젖지 않으니까

함남 수휴 농업 협동조합 리 영만 그림

랭상 모판을 준비하는 두 조합

허 능택 그림

—래일 쯤은 락종을 할 수 있겠군

—래일 쯤은 문짝 원목을 찍으러 갈 수 있겠군

이런것들은 환영 받지 못한다

신혼 부부용인가?

어느 상점에서 일어난 일

조 명식 그림

알고 보니

옥순 동무가 종합 상점 주단부 판매원으로 일하는지는 벌써 여러 해째 된다.

몇해 전에 처음으로 이 직장에 배치 받았을 때에는 《그런것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 근년에 와서는 모직물, 견직물을 비롯해서 면직물, 인견직물 등 가지 각색 천이 즐비하다. 로동자들의 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농민들의 분배가 해마다 많아지자 문화 생활의 요구성이 급속히 높아졌다. 그래서 뉴똔 치마감이요, 양단 저고리감이요, 약산단이요… 찾는 손님들이 와짝 늘었다.

례장감을 사러 농촌에서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화려한 주단부 매대 앞에서 황홀해져서

《아니 여보시요. 판매원 동무 저 비단은 무슨 비단이요?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온 거요?》하고 물을 때면

《그 비단은 양단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짜는거랍니다》

옥순 동무는 자기가 짠것만큼이나 자랑스럽게 대답하군 했다.

이처럼 흥성거리는 주단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상대로 하는데 사람이 생긴 것이 서로 다른 것 처럼 천에 대한 의견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인견 뽀라〉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다. 〈인견 뽀라〉는 여름 옷감인데 백색이나 연한 색은 아주 귀하고 흑색 곤색이 많으며 또 다른 천보다도 더 투박하고 무겁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옥순 동무는 여러번 우에다 반영시킨 일도 있지만 그 후도 계속해서 같은 것을 인수해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백색이나 연한 색으로 내보내기에는 흠이 많고 얼룩이 져서 눈에 잘 띠우기 때문에 이 흠들을 보이지 않게 감추느라고 될수록 진한 색으로 염색을 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구 보니 이 〈인견 뽀라〉의 생산자들은 어떻게 하면 제품의 질을 높이며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것을 생산할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보이지 않게 해서 내보내 볼가 하는 데 더 관심을 돌렸던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산자들의 소원대로 흠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천을 돌보지 않게 되였다.

작은 일같아서

미림 브록크 공장 현장에서는 자주 이런 대화를 들을 수 있다.

《혼합이 규정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차이 없을거요, 할 수 있소》

《로출이 규정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수량이 많은데 언제 규정만 따지고 있겠소》

《철근 배근이 규정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대로 넘깁시다》

《용접이 규정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커다란 차이는 없을거요》

《표준 조작법이 잘 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능공들이 많이 들어왔으니 할 수 없지 않소》

미림에 있는 평양 브록크 공장에는 산더미 같이 브록크가 쌓이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기뻐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쌓이여 있는 브록크들은 오작품이기 때문이다.

지난 날 이 공장 일부 지도 일'군들은《방대한 계획 수'자가 눈 앞에 있는데 언제 규정만 따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하고 표준 조작법을 약간 위반한다던가 기술 기준을 약간 위반하는 것 쯤 작은 일 같이 생각하고 덮어놓고 내밀었다. 그래서 한때 제법 일이 빨리 되는 것 같더니 지금에 와서는 건설장으로도 많은 부재를 보내기도 했지만 오작 부재를 이렇게 많이 내고야 말았다.

꼬마 운전수들의 요구

영남이네 집에는 애들이 많아서 놀음감도 많다. 그중에서도 애들이 제일 즐거이 노는 놀음은 집 짓기와 자동차 놀음이다. 그래서 하이야, 빼스, 화물 자동차, 뜨락또르들이 많이 있다. 이 놀음감들을 새로 사 왔을 때에는 꼬마 운전수들이 제법 신바람이 나서 온 집안을 몰고 다닌다. 그러다가는 때로는 전부가 한구석에 모이게 된다. 그것이 소위 꼬마 운전수들이 명명한대로 〈자동차 사업소〉다. 그들은 이 〈사업소〉에 집합하여 지시를 받고 신바람이 나서 몰구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이렇게 몇 일을 노는 동안에 바퀴가 떨어져서 끼우뚱거리는 차가 점점 많아진다. 그러자 〈자동차 사업소〉는 〈자동차 수리 공장〉이라고 바꾸어 불리워지게 되고 꼬마 운전수들은 자동차 수리공으로 된다. 떨어진 바퀴를 다시 단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들이 다시 바퀴를 달고 달리기도 했지만 바퀴나마 하나 둘 없어져서 이제는 〈수리 공장〉도 못하게 되자 애들은 자동차 놀음이 점점 재미 없어졌다. 새 자동차를 또 사 달라고 조른다.

완구 공장들에서는 꼬마 운전수들이〈자동차 사업소〉 놀음을 오래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김 상애

〈유식〉한데 알아듣기 힘들다

정평 요업공장 리 수길 그림

이러지 맙시다

—좀 더 담아 가지고 가게…

—그만 그만 됐어 됐어…

일부 청년들 속에 이런 그릇된 견해가 있다

청진시 리 웅남 그림

윔 광수 그림

—우리집 앞은 깨끗해졌군요

미술 대학 학생 조 문자 그림

평양시 룡구역 대타령 주택지구까지 서평양역으로 부터 철도 인입선을 시설했다가 철회한 결과 수많은 로력을 랑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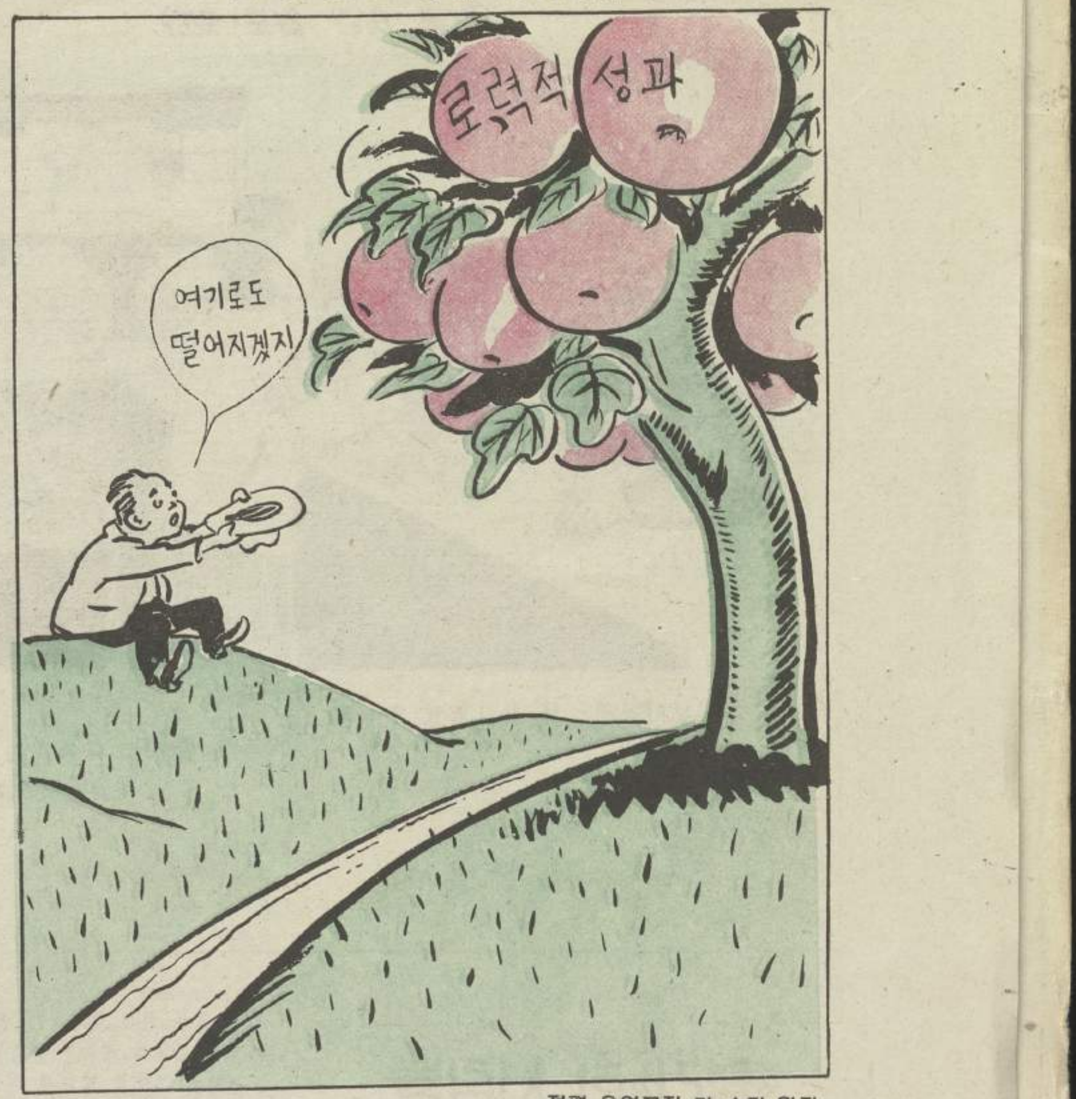
문서 한장의 잘못을

수백명의 로력이 고친다 원 광수 그림

사회주의의 높은 [illegible]리를 향하여

조 명식 그림

남의 등에 업혀 살려는자



정평 요업공장 리 수길 원작
송 용남 개작

파고철도 사회주의 건설에

희천 공작기계 공장 리 영원 원작
리 영춘 개작

이런 현상은 없는가

청진시 리 응남 그림

건달'군

일 할때

상금이 나왔을 때
정평 요업공장 리 수길 그림

한명의 건달'군 때문에

허 능택 그림

간혹 이런 일도 있다

할아버지—엿 한키로만 주시오
판매원—어데다 받아 가실래요? 싸드릴 종이는 없는데요

남포 유리공장 김 대권 그림

평남 광량만 제염소 차 영환 그림

《령리》한 사람들

이 리발소에 있는 수건들은 몹시 어지러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발을 하고 세수를 해서 상쾌해진 기분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닦는 수건이 어지러워서 도로 흐려진다. 헌데 이 리발소에 깨끗한 수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함 속에는 깨끗한 수건이 여러개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손님용이 아니고 위생일에 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 시에는 어지러운 것들을 내놓지만 그들의 〈령리〉한 조치에 의해서 좀체로 위생 검열원에게 적발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생겼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위생일만은 누구보다도 명심해 기억하고 있는 그들이라 오늘도 위생 검열원이 올 것을 알고 일찍암치 어지러운 수건들을 치우고 깨끗한 수건들을 꺼내 놓았다.

그래서 그들은 멋있게 위생 검열원의 눈을 속여 넘겼다.

한참 후의 일이였다. 자기가 깎은 머리 모양을 보려고 거울에 비친 손님의 얼굴을 들여다 본 리발사는 소스라쳐 놀랐다. 아니 이게 아까 왔던 위생 검열원이 아닌가?! 그는 급히 옆의 리발사의 옆구리를 지르고 손짓 눈짓으로 빨리 검열용 수건을 내놓으라고 했다. 옆의 리발사는 황황히 달려가서 어지러운 수건을 걷고 보관해 두었던 깨끗한 수건들을 내놓았다.

위생 검열원이 리발사에게 말을 건넸다.

《거울들이 커서 여러 가지로 리용할 수 있어 좋구만요.》

《아무거나 여러 가지로 리용되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데 또 리용됩니까?》

《이렇게 돌아 앉아서도 당신들이 저 뒤'구석에서 깨끗한 수건을 바꿔 내 놓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리 운봉

영양제 식당에서

—손에 묻은 검댕이를 씻고 식사하게
—쳇, 또 일할텐데 씻으나 마나 하네!

흥남 비료공장 전 남성 그림

애기 입에 더러울 것이면 어머니 입에는 더럽지 않은가?

평양시 김 진호 그림

아동 교육을 옳게 하자

구성 광산 기계공장 최 성하 그림

자극을 받고

기자는 평양 곡산 공장의 책임 위생 지도원을 만나온 사유를 이야기 했다.

《지금 건물을 수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생 문화 사업이 잘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솔직한 그의 품성이 맘에 들었다. 처음에 록제품 직장으로 가 보았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위생 지도원은 직장 문어구에서 들어 가기를 망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서성거리다가 주저주저 문을 여는 것이였다. 문을 열고 처 들어 서니 그 곳은 기름과자를 만드는 곳이였다. 그 곳을 지나 휴계실에 가서야 위생 지도원은 기자에게 위생복을 입으라고 내 주었다.

생산 현장을 다 지나와서 무슨 위생복을 입으란 말인가? 그제서야 기자는 위생 지도원이 문어구에서 망서린 리유를 알 수 있었다. 기자에게 위생복을 입히고 들어가야겠는데 그 위생복이 기름 과자를 만드는 현장을 다 지나 가서 휴계실에 가서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리 만드는 곳과 포장하는 곳에서 일하는 동무들은 이 곳을 지나 휴계실에 가서 위생복을 입고, 나올 때는 입고 있던 위생복도 휴계실에 벗어 놓고 이 곳을 지나 나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통로로 그 곳이 리용되고 있었다. 기자는 제과 직장에 들렸다. 그러나 위생 지도원은 웬 일인지 안으로 안내하는 것을 싫어 하면서

《뭐, 보실 게 없습니다. 이리루 들여다 보십시요.》 하며 창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였다. (아마 식료품의 정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이군)

그러나 뿌연 창으로는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좀 들어가 볼 희망을 표시한즉 위생 지도원은 마지 못해 대답하고는 또 다시 문어구에서 주저 주저하다가 위생복을 입으란 말도 없이 안으로 안내하는 것이였다. 기자는 의아했다. 안으로 안내하지 않으려고 한 리유가 식료품의 정결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안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저쪽 구석에서 벽을 수리하고 있다. 물론 조심스레 작업하기도 하고, 또 수리하는 벽이 회벽이기 때문에 먼지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식료품 공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수리하는 곳과 과자 만드는 곳 사이를 림시 무엇으로 막고 벽을 수리해도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안으로 안내하지 않으려 했군) 그제야 기자는 맺혔던 의문이 풀리였다.

《안됐구만요.》

그러자 위생 지도원이 하는 말이

《예, 지금 위생 문화 사업이 잘 안된다고 비판을 받구서 자극을 받구 일대 혁신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건물을 개조하는 중입니다.》

자극을 받구서? 자극을 받고 이 모양이니 자극을 받기 전엔 그럼 이보다 더 했단 말인가? 이런 먼지 속에서 그들은 위생복을 입고 일한다. 그 위생복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만일 소용이 된다면 자기 의복에 먼지들이 앉지 않도록 하는데나 소용될 것이다. 들린 직장마다 이러니 다른 직장 형편까지 일일히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자는 공장 내 직장들에 위생에 대한 표어가 없는데 대하여 놀라지 않았다. 하기는 그런 표어를 붙이지 않고 생산 문화에 무관심한 덕에 공장 지도부는 웃음거리를 면했던 것이다.

리 운봉

누구 보라고 붙였나……

—아버지 저것은 무슨 그림이예요?
—글세…높이 붙여서 나도 알아볼 수가 없구나

흥남 비료공장 전 남성 그림

의주군 대문 중학교 박 원무 그림

정평 요업공장 리 수길 그림

사회주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청산된 기생충들은 발악한다 송 용남 그림

딱한 일 상담소

신 흥순

《먹을 걸 내라! 직업을 다오!》《도대체 네놈들은 뭘 허구들 있는 거냐?》 상이군인 제대군인들의 항의의 목소리—

떼를 지어 관청을 습격하고 공무원을 구타하는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항의문이다, 진정서다 꼬리를 물고 날아드는 통에 리 승만 도배들은 당황망조하면 남어지 한 가지 《대책》을 꾸며 냈으니 그게 바로 사람들의 조소꺼리로 된 소위《딱한 일 상담소》란 것이다.

이 《딱한 일 상담소》란 문자 그대로 상이군인이나 제대군인들이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딱한 사정은 무엇이든지 와서 상담하라는 것이다.

이 간판이 나 붙자 이때까지 속아만 지내오던 그들이건만 혹시나 하고 반신반의 하면서 찾아 들었다.

《에, 차례차례로 얘기들 해 보슈》

이 상담소 소장으로 부임된 예수교 목사가 바른편에 앉은 제대 군인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나는 국군에 있다가 다섯해만에 요즘 제대돼서 집엘 와 보니 아버지는 4년 전에 전선 로무자로 끌려간 후 종무소식이고 어머니 혼자서 어린것 셋을 데리고 고생살일 허시는데 엊그제 경관들이 와서 판자집마저 강제로 헐어 버려 이 추운 겨울에 한데 나 앉게 됐으니 이게 원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먹을 것도 안주고 직업도 알선 해 주지 않고——그래 찾아 왔습니다.》

《예》

목사는 한 마디 대답을 하고는 그 다음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는듯이 바라 본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다리 병신인 상이군인이요, 정부에선 무슨 보조금두 준다, 직업도 알선해 준다, 떠벌이기만 허구 준다는 건 고통 밖엔 없쇠다.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난 요즘 상처가 또 도져서 병원에라도 가야겠는데 웬 돈이 있소? 그러니 이 딱한 사정을 좀 해결해 주쇼!》

목사는《예》대답을 하고는 또 다른 사람을 본다.

《나두 몸에 병이 나서 제대됐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짓는데 지난 가을에 타작 마당에서 〈토지 상환곡〉이니 〈수득세〉니 비료대, 수세, 그리고 나머지는 추곡 매상으로 몽땅 다 뺏어 가고 량식이 떨어져 시라기 죽과 칡뿌리로 겨우 연명해 왔는데 지금 온 식구가 부황증에 얼굴이 퉁퉁 부어 누워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쌀이라도 좀 주십쇼, 그렇잖으면 살 도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참 딱한 사정들이군요》 목사는 점잖을 빼면서 방안을 휘둘러 보며 입을 열었다.

《결국 우리들이 빈한하게 살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문입니다》《뭐요? 히! 전에 군대에서 군목(군대 목사)이 하던 말본때가 여기두 있구먼!》

모두들"피"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빈한한 또 하나의 원인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토지는 고정돼 있고 아니 지금은 농토가 외려 자꾸 줄어만 가죠, 군용지루 쓰이니까, 그런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만 가니 자연 살기 어려울 수 밖에요》

《여보쇼! 그따우 게잘사헌 소리 그만 두쇼!》

상이군인이 내 쏘았다.

《그리구 또 우리가 못사는 원인의 하나는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인들의 생활은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으니까요, 그러니 잘 입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여보 그게 말따우라구 하우? 정친지 망친지 한다는 자들이 제패 불리는 데만 눈이 뒤집혀서 백성을 굶기구 우릴 대포밥으로 부려 먹다가 헌 신짝같이 내버리는거지 뭐 하나님? 인구? 문화 수준? 딴 소리 말구 어서 해결이나 해 주우!》

상이 군인이 요정이나 낼듯이 쏘아 붙인다.

《자 하나님께 기도 드립시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십쇼》

목사는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더니 《하나님 아버지》 어쩌구 저쩌구 지껴려 댄다.

《여보쇼! 기도는 그만치 허구 대책이나 어서 얘기해 주쇼! 그래두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기에 이런 간판을 붙였겠지?》

상이군인이 기도 드리는 목사를 흔들어 일군다. 목사는 기도를 중단하고

《대책이란게 별게 있습니까? 성서에도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구 했습니다. 자 또다시 기도를 드립시다》하고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 이 거동을 보고 어쩌나 부아가 났던지 제대군인이 벌떡 일어나며

《엥이 이 꽁지벌레만두 못한 자식 같으니!》 하고는 엎뎌 있는 목사의 뒤꽁문이를 본때 있게 발길로 차고는 나가버린다.

상이군인 역시 옆에 세워 놓았던 지팽이로 목사의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임마! 하나님이 배 불려?》하고는 침을 퉤! 뱉고 돌아섰다.

《미친 것을 끌어 내라!》

《아니 누가 그따우 헛 소릴 들자구 찾아 온 줄 아냐?》

문밖에 모여 들었던 상이군인들이 문에 넘처 떠든다.

《이게 무슨 놈의 상담소냐?》

뎅그렁 간판 내 던지는 소리가 들린다.

목사는 남의 〈딱한 일〉을 상담하다가 자기 자신이 〈딱한 사정〉에 봉착하고 말았다.

현대의 노예 상인

백 인균 그림

괴뢰군 장교—헤헤헤 오나 가나
타고난 팔자란 말이야

종지휘관

백 인균 그림

끌 수록 더 커진다

송 용남 그림

여우 3호

오 흥택

괴뢰군 병사 박 동일은 창고 경비를 선 다음날 아침에 련대장실에 불리워 갔다.

박 동일이 영문도 모르고 련대장실 문을 열었을 때 련대장은 벼락같은 호통부터 시작했다.

《임마, 네가 쌀과 양말을 훔쳤지?》

《네!?》

박 동일은 그야말로의 청천 벼락에 어리둥절하였다.

《왜 대답이 없어, 엉 쌀 50가마니와 양말 궤짝 열개가 간밤에 없어졌어, 엇다 팔아 먹었어? 엉》

《련대장님 제가 팔아 먹다니요?》

《뭣이!》

련대장실에 앉았던 창고장이 박 동일을 후려갈겼다. 련대장은 곤봉을 들고 내려쳤다. 다음은 구두'발이 그를 내려 짓밟았다.

《임마 바른대로 말해.》

박 동일은 의식을 잃은 다음에야 지하실에 감금되였다.

즉시로 련대장의 《엄격한 훈령》이 시달되였다.

《사병 박 동일이 경비중 쌀과 양말을 도난 당하였으므로 금일부터 급식량이 줄 것이고 금년 겨울에는 양말 공급이 없을 것이다. 만일 불평을 말해서 문제가 확대되면 박 동일은 군사 재판을 받을 것이며 전 련대가 처벌로 혹심한 고역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일체 불평 불만을 하지 말며 사건을 비밀에 붙일 것.》

련대장의 《훈령》은 사병들 속에 불만을 야기시켰다.

《어느 놈이 처 먹고 박 동일이나 우리들이 화를 당하는가?》

식사 공급량이 줄어든 데 대해서 특히 불만이 많았으나 후과가 두려워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불만을 늘어 놓는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한달이 넘어서야 박 동일은 석방되였다. 《동일이 어떻게 된 갑투야?》

《어느 놈의 수작인지 어느 때고 한번은 해 내고야 말테다.》

박 동일은 비분에 찬 목소리로 말하군 했다. 그는 자기가 당한 치욕과 분함을 참을 길 없었다.

또 한달이 지났다.

눈보라 휘몰아 치는 밤 박 동일과 몇몇 사병들은 숯을 싣고 춘천 시내로 나갔다.

사병들 속에서《여우 3호》라고 불리우는 련대장의 세째 첩의 집에 보내는 것이였다.

달리는 화물 자동차 꼭대기에서 사병들은 얼어 붙은 몸을 서로 부비며 불평을 늘어 놓고 있었다.

《온 겨울 양말 한짝 얻어 못신고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밥이라두 한번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여우 3호가 나타나면 이렇게 재수 없는거야. 동일이 영창에 붙어갈 전날에도 〈여우 3호〉가 련대에 왔다갔어. 에익 재수 없어.》

《망할 판엔 빨리 망해야지 이거야 사람이 견디여 내겠니!》

조여드는 추위를 막을 수 없는 사병들은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다. 허나 어데 가서하소연 조차 할 곳 없는 것이 사병들의 처지였다.

《여우 3호》네 집에 차가 도착한 것은 아침 10시도 훨씬 넘어서였다.

《여우 3호》는 아직도 빠자마 바람으로 텁술한 머리채를 가로세로 휘저으며 나왔다.

《숯섬은 이 큰 창고를 정리하고 쌓고 장작은 잘게 패서 이 쪽에 쌓아라.》

《여우 3호》까지도 이제는 바로 련대장 노릇을 한다.

박 동일은 숯섬을 메고 창고 안으로 들어 갔을 때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경비하던 날 밤 도난 당했다던 양말 궤짝과 쌀 가마니가 창고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박 동일이 심상치 않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사병들이 우루루 몰려왔다.

《뭐야? 뭐야?》

《흥, 련대장과 〈여우 3호〉의 수작이로구나!》

박 동일은 내여 뱉듯 웨쳤다.

《이 양말 궤짝이구, 저 비누 궤짝이구 할것 없이 모두 우리 사병들의 급식용을 이년놈들이 빨아 먹는거야.》

《현재 얼마 안되는 급식물을 이것들이 이 수작을 하니 우린 뭘 먹어야 하니?》

사병들은 주먹을 불끈 쥐였다.

《우리 가족은 굶주리고 우린 이렇게 굴욕을 당하구… 누구 때문에 이 노릇을 하는거야, 더는 못참겠다.》

사병들은 주먹을 틀어쥔채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창고에서 밀며 나왔다.

《저 련대장 놈을!》

사병들은 앞으로 나갔다.

허수아비 정부의 최후 발악

남포 유리공장 김 대권 그림

강제 징소집

탈주병과 병역 기피자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그 수를 메꾸기 위해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다.

박 승회 그림

나는 진짜 아메리카 사람이 될래요

—미국 죠지아 주 다우슨 시 백인 학교 학생의 수기에서— 즈. 유리예브

…어제'밤, 학교에서 돌아 오자 나는 아버지에게 우리 반의 두 아이가 끓는 육수'국을 흑인 계집애에게 퍼부었다고 말씀 드렸다.

《이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나는 물었다.

《이건 우리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표식이지——하고 아버지는 대답 하셨다——물을 붓지 않았단 말이지? 오 하느님이시요,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맛있는 육수'국을 그 흑인 계집애에게 껴 얹을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공부할 때엔 왕왕 끓는 물밖에 붓지 못했단다.

× × ×

…어제'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야기란 며칠 전에 우리 도시의 경찰이 한 흑인을 그의 집에서 구타하고 또한 그 집에서 다른 흑인 하나를 쏘아 죽인 일에 대한 것이였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 사건이 실린 《와싱톤 포스트 앤드 타임스 헤랄드》 신문까지 보여 주었다.

《주의해서 이걸 읽어 봐라. 이건 우리들이 진보했다는 상징이란다. 과연 50년 전에 흑인을 그의 집에서 구타하거나 총살할 수 있었던가? 천만번 불가능 했지! 왜냐 하면 그 때엔 제 집을 가지고 있는 흑인이란 하나도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렇단 말이다! 그러니 얘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주었는가 말이다》

× × ×

얼마 전에 우리 다우슨 시에서는 참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 하나 생겼다. 한 흑인 할머니가 제 검정애를 면회하려고 감옥에 찾아 갔는데 간수는 그 늙은이를 감방에 처 넣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앉혀 놓았단 말이거던 참 우습기두…

《자 봐라, 이건 인도주의와 박애 정신에 대한 또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무어냐——하고 아버지는 이야기해 주었다—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이처럼 모성애에 대하여 존경을 표시할 수 있단 말이거든!》

× × ×

…오늘 아버지는 나를 바라 볼 때 무척 기뻐하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자 이걸 보란 말야!》하고 아버지는 신문 한장을 나에게 내 미는 것이였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신문을 읽어 내려갔다. 미씨시피 주에 사는 흑인 청년 크레논•킹이라는 자가 지방 대학 당국에 그곳 철학부에서 공부하고 싶으니 받아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거절 당하였다는 소식이였다. 물론거절 당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흑인 청년은 여전히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학교 교수들은 경찰국에 통지하여 그 자를 체포하고 다음에는 정신병 병원에 입원시키게 하였다 한다.

《왜 그 자를 정신 병원에 보내서 검사하게 했을가요》

하고 나는 물었다.

《아니, 왜라니?——하고 아버지는 의아적게 되물으시는 것이였다——아니 그럼 미씨시피 주에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흑인이 감히 백인들의 대학에, 그것도 철학부에 들어 가겠다고 감히 말하는 사실을 묵과할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 모든 것은 나를 참 기쁘게 해 준단 말야, 그렇지 않니? 이건 우리 사회의 완전한 사회 보장 체계에 대한 또하나의 상징이란 말이거든! 어데에 이처럼 수중에 돈 한푼 없는 흑인 청년을 친절하게 병원에 보내서 무료로 검사를 하게 하는데가 있단 말이냐! 얘야! 난 이것을 읽고 더 없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다》

× × ×

…어제 나는 동무들과 함께 시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흑인애 두 명이 나타났다. 우리들은 어서 물러 가라고 소리 소리 질렀다. 그 애들이 급기야 물러 선 다음 우리는 이 사실을 해당 당국에 보고하였다. 그래서 수영장은 며칠간 출입 중지되고 몽땅 다시 소독을 하게 되였다.

나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씀 드렸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면서 두 딸라를 주면서 칭찬하여 주셨다.

《장하다, 내 아들아! 아버지는 너에게 진정한 아메리카 사람다운 품성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 참 자랑스럽다!》

—끄로꼬질 1958년 제 19호에서—

쏘련 미술 전람회에서

그 녀자는 바삐 서둔다

B.Я. 꼬노와롭 그림

설계 사무소에서 소위 창의 고안자들

M.T. 겐츠-오그레브 그림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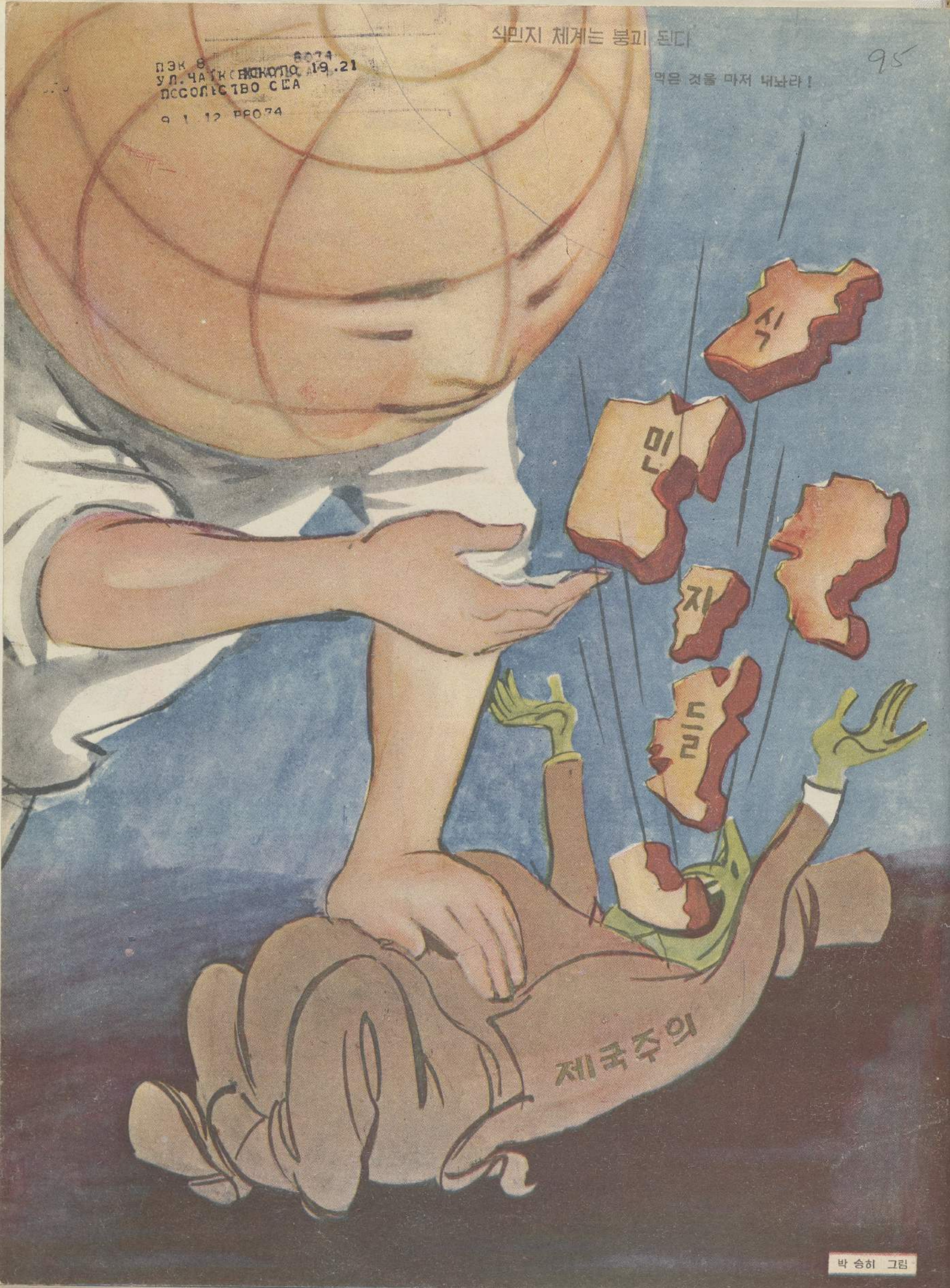
B.Г. 레자흐 그림

놀고 먹는 뉴-라

B.Г. 레자흐 그림

앵무새

B.Г. 리뜨비넨꼬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인쇄 1959. 2. 19. ㄱ—14068
발행 1959. 2. 22.
값 50전

ПЭК 8 8074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21
ПОСОЛЬСТВО США
9 1 12 РР074